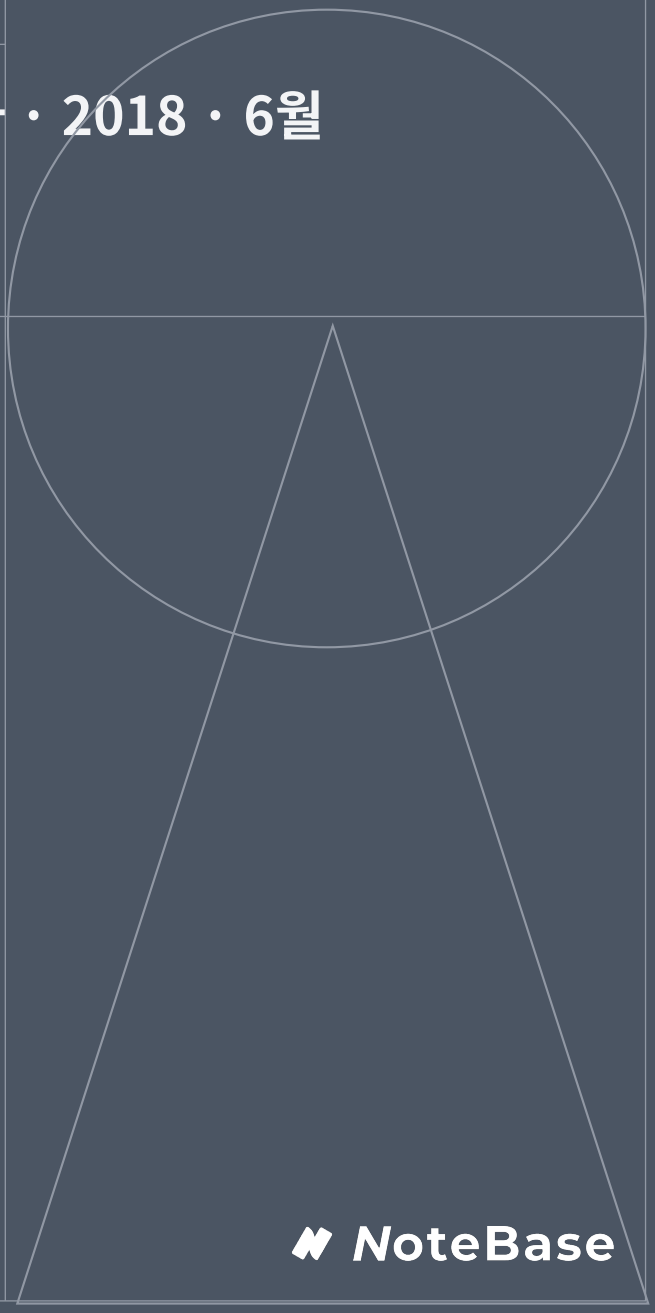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6월

문 1.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은?

<보기>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전기구석기 문화가 유럽·아프리카 아슐리안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찍개 문화로 나뉜다는 고고학계의 학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① 공주 석장리 유적
② 연천 전곡리 유적
③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④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천 전곡리 유적의 의의와 다른 구석기 유적의 대표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천 전곡리 유적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어 모비우스 학설을 뒤흔든 대표 유적이다.
공주 석장리 유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생활 유적이다.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은 구석기 시대 인골인 흥수아이가 출토된 곳으로 유명하다.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은 구석기인의 거주 흔적이 확인된 바위그늘 유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주 석장리 유적은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지만 보기의 핵심인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와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공주 석장리 유적'이다. 올바르게는 연천 전곡리 유적이다.
② O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었고, 이 발견은 동아시아에는 찍개 문화만 있다는 모비우스 학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③ X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은 흥수아이 인골 출토로 유명한 유적이다. 틀린 표현은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이다. 올바르게는 연천 전곡리 유적이다.
④ X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은 구석기인의 주거 흔적을 보여 주는 유적이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발견의 상징적 유적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이다. 올바르게는 연천 전곡리 유적이다.

오답 포인트

네 선지 모두 선사 시대 유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보기의 결정적 단서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와 '동아시아 찍개 문화설 붕괴'이므로 전곡리를 바로 떠올려야 한다. 두루봉 동굴의 흥수아이, 석장리의 대표적 구석기 생활 유적 성격, 상시리의 바위그늘 주거 흔적을 전곡리의 의의와 뒤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사 유적 문제는 유적 이름 자체보다 대표 유물과 대표 의미를 먼저 연결해 판단한다. '주먹도끼와 모비우스 학설 붕괴'가 보이면 연천 전곡리 유적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곡리 = 주먹도끼 = 모비우스 학설 붕괴, 두루봉 = 흥수아이, 석장리 · 상시리 = 대표 구석기 생활 유적이다.

NoteBase

문 2. <보기> 자료의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 발행한 화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전폐(錢幣)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중외에 고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한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는데, 그 제도는 은 1근으로 만들고, 형상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하였으며, 속칭 활구라고 하였다.

① 건원중보
② 상평통보
③ 조선통보
④ 해동통보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주전도감 설치와 은병(활구) 사용 정책을 시행한 고려 숙종을 파악하고, 그와 연결되는 화폐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고려 숙종은 주전도감을 두고 은병(활구)과 해동통보 등을 주조하였다.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의 화폐이다.
조선통보는 조선 세종 때 주조한 화폐이다.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 본격적으로 유통된 화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주조된 화폐이다. 틀린 표현은 숙종의 화폐로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성종의 화폐이다.
② X: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 본격적으로 주조·유통된 화폐이다. 틀린 표현은 고려 숙종의 정책과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조선 후기의 화폐이다.
③ X: 조선통보는 조선 세종 때 주조한 화폐이다. 틀린 표현은 고려의 화폐로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조선 전기의 화폐이다.
④ O: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이 주전도감 설치와 은병 사용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발행한 화폐이다. 자료의 활구와 같은 왕대의 화폐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상평통보는 같은 묘호인 숙종이 있어서 고려 숙종과 조선 숙종을 혼동하기 쉽다. ①과 ③도 모두 실제 화폐명이므로 왕조와 시기를 함께 묶어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 문제는 화폐 이름만 보지 않고 왕조와 국왕을 먼저 연결해 판단한다. 자료에서 주전도감, 은병, 활구가 나오면 고려 숙종을 떠올리고 해동통보와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려 숙종 = 주전도감·은병(활구)·해동통보, 조선 숙종 = 상평통보이다.

NoteBase

문 3.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를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어쩌다 글을 아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가)에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하므로, 훈도·교수가 되는 자가 초동(樵童)·목수(牧叟)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갈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중종실록』

① 군현의 인구비례로 정원을 배정하였다.
② 천민도 입학이 허가되었다.
③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④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의 '훈도·교수'와 교생 운영 실태를 단서로 (가)가 향교임을 파악하고, 향교·서원·과거 특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향교는 조선의 지방 관학으로 군현마다 설치되었고 교수·훈도가 교육을 맡았으며 교생 정원을 지역 규모에 따라 두었다.
서원은 지방 사림이 세운 사학으로, 사액을 받으면 편액과 서적, 토지와 함께 면세 특권이 주어졌다.
향교 우등자에게는 생원·진사시 복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전이 있었지만,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하는 기관은 아니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제시문에 나온 훈도·교수는 향교의 교관이다. 향교 교생의 정원은 군현의 규모에 따라 차등 배정되었으므로 군현의 인구 비례로 정원을 두었다는 설명은 옳다.
2번: X. 틀린 부분은 '천민도'이다. 향교는 양반뿐 아니라 양민·서얼도 입학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천민까지 허용한 기관으로 잡는 것은 부정확하다. 올바르게는 양민과 서얼까지 입학한 지방 관학으로 본다.
3번: X. 틀린 부분은 '사액을 받으면 면세의 특권'이다. 사액과 면세 특권은 서원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향교는 국가가 세운 지방 관학이고, 사액서원에 면세 특권이 주어졌다.
4번: X. 틀린 부분은 '문과 복시에 바로'이다. 향교의 우등자에게는 생원·진사시 복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전이 주어졌다. 올바르게는 향교 우등자는 소과인 생원·진사시 복시에 직부할 수 있었다.

오답 포인트

향교 문제에서 사액서원의 특전과 과거 응시 특전을 뒤섞으면 틀리기 쉽다. '훈도·교수'는 향교, '사액·면세'는 서원, '문과 복시'는 다른 과거 특전이라는 점을 갈라서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 기관 문제는 운영 주체와 핵심 키워드부터 본다. 군현·교수·훈도·교생 정원이 나오면 향교이고, 사액이 나오면 서원이며, 과거 직부 특전은 어떤 시험의 복시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향교는 지방 관학, 서원은 사액 특권, 향교 우등자는 생원·진사시 복시 직부이다.

NoteBase

문 4. <보기>는 한국 고대사회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백제의 아직기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ㄴ. 다카마쓰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가야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ㄷ.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ㄹ.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한국 고대 사회 문화가 일본에 전해질 때의 전파 주체와 전파 내용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직기와 왕인은 한자·유학 등 학문 전래와 관련된 인물이고, 일본에 불교를 전한 대표적 인물은 백제의 노리사치계이다.
다카마쓰 고분 벽화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 닮아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본다.
신라는 조선술과 축제술을 일본에 전하였고, 고구려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①은 ㄱ, ㄴ이 모두 맞아야 하는데 둘 다 틀리다.
ㄱ의 틀린 표현은 "아직기 … 불교"이다. 아직기는 한자와 학문 전래와 관련된 인물이고, 일본에 불교를 전한 것은 백제의 노리사치계이다.
ㄴ의 틀린 표현은 "가야문화"이다. 올바르게는 다카마쓰 고분 벽화를 통해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알 수 있다.

② X
②는 ㄴ이 틀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ㄴ의 틀린 표현은 "가야문화"이다. 올바르게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다.
ㄷ은 맞는 진술이다. 신라는 조선술과 축제술을 일본에 전하였다.

③ X
③도 ㄴ이 틀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ㄴ의 틀린 표현은 "가야문화"이다. 올바르게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다.
ㄹ은 맞는 진술이다. 고구려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④ O
④는 ㄷ, ㄹ이 모두 맞으므로 옳다.
ㄷ은 신라가 일본에 조선술과 축제술을 전한 사실을 묻는 진술이다.
ㄹ은 고구려 승려 혜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사실을 묻는 진술이다.

오답 포인트

아직기와 노리사치계의 역할을 뒤섞거나, 다카마쓰 고분 벽화를 가야 문화와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일본 전파 문화사는 인물과 문화 요소를 짝으로 기억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문제는 먼저 인물과 문화 요소를 1대1로 연결해 본다. 아직기·왕인은 학문, 노리사치계는 불교, 혜자는 쇼토쿠 태자와 연결하고, 일본 고분 벽화 자료는 고구려 문화 영향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아직기·왕인=학문, 노리사치계=불교, 혜자=쇼토쿠 태자, 다카마쓰 벽화=고구려, 신라=조선술·축제술이다.

NoteBase

문 5. <보기>의 내용이 추가되었던 제4공화국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ㄱ. 10월 유신
ㄴ. 100억 불 수출
ㄷ. 1000불 소득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②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되어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 시행되었다.
③ 정권에 반대하는 교수, 종교인 등이 긴급조치로 투옥 혹은 해직되었다.
④ 학생, 지식인, 언론, 종교단체, 야당 등의 반대 속에서 한일 협정이 조인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4공화국의 유신 체제 정치 상황을 묻고, 이를 제3공화국의 한일 협정 체결 시기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4공화국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유신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긴급조치로 대표되는 체제이다.
제3공화국은 1963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 시기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과 1969년 3선 개헌 등이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기구이므로,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설명은 제4공화국의 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② O
유신 헌법은 1972년 비상계엄하에서 마련되어 국민투표로 확정·시행되었으므로, 이 설명은 제4공화국의 성립 과정과 맞는다.

③ O
유신 체제에서는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정권 비판 세력인 교수, 종교인, 학생 등이 투옥되거나 해직되었으므로, 이 설명도 제4공화국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한일 협정이 조인되었다"이다.
한일 협정은 1965년에 학생, 지식인, 종교계, 야당 등의 반대 속에서 체결되었으며, 이는 제4공화국이 아니라 제3공화국 시기의 일이다.

오답 포인트

박정희 정부 전체를 하나의 시기로 뭉뚱그리면 ④처럼 제3공화국 사건을 제4공화국 사건으로 착각하기 쉽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 헌법, 긴급조치는 제4공화국의 표지이고, 한일 협정은 1965년 제3공화국의 사건이라는 연표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 헌법, 긴급조치가 보이면 제4공화국으로 판단하고, 한일 협정이 보이면 1965년 제3공화국 사건으로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신 체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유신 헌법·긴급조치이고, 한일 협정은 1965년 제3공화국이다.

NoteBase

문 6. <보기>는 개항 이후 경제 상황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청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ㄴ. 일본인 재정 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ㄷ. 대한천일은행이 고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다.
ㄹ.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 중심의 거류지 무역을 시작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ㄹ - ㄱ - ㄷ - ㄴ
④ ㄹ - ㄱ - ㄴ - ㄷ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개항 이후 경제 정책과 상업 변화의 발생 시기를 앞뒤로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ㄹ -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 거류지 무역을 시작하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의 활동이 먼저 나타났다.
2. ㄱ - 청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청 상인이 조선 내륙까지 상권을 넓혔다.
3. ㄷ - 대한천일은행이 고종의 지원 아래 설립되었다. 대한제국기인 1899년에 설립되었다.
4. ㄴ -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을사늑약 이후인 1905년부터 추진되었다.

왜 이 순서: 개항 직후의 거류지 무역이 가장 이르고, 청의 내지 통상권은 임오군란 이후, 대한천일은행 설립은 대한제국기, 화폐 정리 사업은 통감부 시기이므로 가장 늦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을 ㄷ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 이후이고 대한천일은행 설립은 1899년이므로 올바르게는 ㄱ-ㄷ-ㄴ이 된다.

② X
가장 앞자리에 ㄱ을 둔 점이 틀렸다. 청 상인의 내지 통상권 획득은 1882년이고 일본 상인의 거류지 무역 시작은 개항 직후이므로 올바르게는 ㄹ-ㄱ-ㄷ-ㄴ이 된다.

③ O
ㄹ-ㄱ-ㄷ-ㄴ의 배열이 맞다. 개항장 거류지 무역,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대한천일은행 설립, 화폐 정리 사업의 순서로 이어진다.

④ X
ㄴ을 ㄷ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고, ㄹ과 ㄱ의 자리만 맞는 선택지이다. 올바르게는 ㄹ-ㄱ-ㄷ-ㄴ이 된다.

오답 포인트

대한천일은행 설립과 화폐 정리 사업을 모두 대한제국기 경제 정책으로만 묶어 보면 선후가 흐려진다.
대한천일은행은 광무개혁 시기이고,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의 재정 침탈이 본격화된 통감부 시기라는 점이 구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항 이후 경제사는 개항 직후의 무역 변화, 임오군란 이후 청 상인의 상권 확대, 대한제국기의 근대 금융기관 설립,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경제 침탈 강화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거류지 무역 → 청의 내지 통상 → 대한천일은행 → 메가타 화폐 정리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제13대 대통령 선거
ㄴ. 4·13 호헌 조치 발표
ㄷ.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ㄹ.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결성

① ㄴ - ㄱ - ㄷ - ㄹ
② ㄴ - ㄷ - ㄱ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ㄷ - ㄹ - ㄴ - ㄱ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전개 과정의 핵심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ㄷ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1987년 1월에 발생하여 6월 민주 항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ㄴ 4·13 호헌 조치 발표 — 전두환 정부가 1987년 4월에 현행 헌법 유지를 선언하였다.
3. ㄹ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결성 — 호헌 조치에 맞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결집하였다.
4. ㄱ 제13대 대통령 선거 — 1987년 말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왜 이 순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민주화 여론을 키운 뒤 호헌 조치가 나왔고, 그 반발 속에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으며, 그 흐름의 결과로 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을 가장 앞에 둔 것이 틀리다. 4·13 호헌 조치 발표보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틀린 표현은 'ㄴ-ㄱ-ㄷ-ㄹ'의 첫 순서이다. 올바르게는 'ㄷ-ㄴ-ㄹ-ㄱ'이다.
② X: ㄴ을 ㄷ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먼저이고, 그 뒤에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틀린 표현은 'ㄴ-ㄷ-ㄱ-ㄹ'이다. 올바르게는 'ㄷ-ㄴ-ㄹ-ㄱ'이다.
③ O: ㄷ-ㄴ-ㄹ-ㄱ의 배열이 맞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후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에 맞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 뒤 제13대 대통령 선거로 이어졌다.
④ X: ㄹ을 ㄴ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은 4·13 호헌 조치 발표 이후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ㄷ-ㄹ-ㄴ-ㄱ'이다. 올바르게는 'ㄷ-ㄴ-ㄹ-ㄱ'이다.

오답 포인트

4·13 호헌 조치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은 모두 1987년 민주화 운동 국면에 속하므로 선후가 자주 뒤섞인다. 이 문항의 함정은 호헌 조치가 먼저 나오고, 그 반발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다는 인과를 놓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987년 민주화 운동 순서 문제는 계기 사건, 정권의 대응, 반대 세력의 조직화, 제도 변화의 결과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박종철 사건 같은 계기 사건이 먼저이고, 호헌 조치는 정권의 대응이며, 국민운동본부 결성은 그에 대한 조직적 반발, 대통령 선거는 최종 정치 일정이다.

암기 포인트

1987년 흐름은 '박종철 사건 → 호헌 조치 → 국민운동본부 → 13대 대선'이다.

NoteBase

문 8.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민지 조선 내에서 부족해진 식량은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메꾸었다.

②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의 땅 등 모든 국유지는 물론 황무지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땅들도 모두 조선총독부로 귀속시켰다.

③ 소작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외에도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④ 지주들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켰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산미증식계획의 결과와 토지 조사 사업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고 조선의 쌀 생산과 일본 반출을 늘린 식민지 농업 정책이다. 결과 축은 쌀 증산, 일본 반출 확대, 농민 부담 증가이다.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를 신고하게 하여 미신고지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가 장악한 식민지 토지 수탈 정책이다. 결과 축은 토지 소유권 재편과 총독부의 토지 편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이다. 조선에서 생산된 쌀이 일본으로 대량 반출되면서 조선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만주에서 조·옥수수·콩 같은 잡곡을 들여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② X이다. 틀린 부분은 이 내용을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으로 본 점이다.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의 토지, 황무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에 귀속시킨 내용은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이다.
③ O이다. 산미증식계획 추진 과정에서 수리 시설 확충이 이루어졌지만 그 비용 상당 부분이 수리조합비 형태로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소작농은 고율 소작료에 더해 여러 부담을 짊어졌다.
④ O이다. 쌀 생산 확대와 일본 반출 구조 속에서 이익을 크게 본 쪽은 지주층이었다. 지주들은 쌀 판매와 소작료 수취를 통해 이익을 늘릴 수 있었다.

오답 포인트

식민지 시기 농업 정책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②에 흔들리기 쉽다. 국유지 편입, 황무지 조사, 소유권 정리는 토지 조사 사업이고, 수리조합비, 쌀 반출, 잡곡 수입은 산미증식계획의 결과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총독부의 토지 장악을 말하면 토지 조사 사업으로 본다. 선지가 쌀 생산 확대, 일본 반출, 농민 부담 증가를 말하면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토지 조사 사업은 땅의 귀속 문제이고, 산미증식계획은 쌀 증산과 농민 부담 문제이다.

NoteBase

문 9. 조선초기 대외관계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숙주는 일본에 다녀온 뒤, 일본의 사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견문록 『해동제국기』를 성종2년(1471)에 편찬하였다.

② 대마도주가 무역을 요청해 오자, 벼슬을 내려 조선의 신하로 삼고, 부산, 인천, 원산 3포를 열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③ 태종은 요동 수복을 포기하지 않고, 삼남지방의 향리와 부민을 대거 북방으로 강제 이주시켜 압록강 이남지역의 개발을 추진했다.

④ 여진족에 대해서는 포섭정책만을 구사하여, 국경지역에서 무역을 허용하고, 조공과 귀화를 권장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전기 대일 관계, 북방 개척, 여진 정책의 핵심 사실을 정확한 고유명사와 정책 방향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선의 대외 관계는 대상에 따라 방식이 달랐다.
일본과는 교린 체제 아래 제한된 통교와 무역을 관리하였다.
북방 개척은 세종 때 4군 6진 개척과 사민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여진에 대해서는 무역·조공·귀화를 허용하는 회유책과 군사적 토벌을 함께 사용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신숙주는 일본에 다녀온 뒤 일본의 사정과 주변 정세를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해동제국기』는 성종 2년인 1471년에 간행되었으므로 선지의 내용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부산, 인천, 원산 3포"이다.
실제로는 부산포, 제포, 염포의 3포를 열어 왜인 무역을 허용하였다. 인천과 원산은 조선 전기 대일 무역의 3포가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태종은 … 향리와 부민을 대거 북방으로 강제 이주시켜 압록강 이남지역의 개발을 추진했다"이다.
실제로는 세종 때 4군 6진을 개척하고 사민정책을 실시하여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북방 경영을 강화하였다. 북방 개척의 주체를 태종으로 바꾼 점이 틀리다.

④ X
틀린 부분은 "포섭정책만"이다.
실제로는 여진에 대해 국경 무역과 조공·귀화를 허용하는 회유책을 쓰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토벌과 4군 6진 개척 같은 강경책도 함께 사용하였다. 여진 정책을 포섭만으로 한정한 서술은 틀리다.

오답 포인트

②는 삼포의 지명을 바꿔 넣은 함정이고, ③은 세종의 북방 개척을 태종으로 바꾼 함정이다. ④는 여진 정책을 회유 일변도로 단순화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전기 대외관계 문제는 먼저 고유명사와 정책 성격을 확인하면 정리가 된다. 삼포의 이름, 북방 개척의 시기와 주체, 여진에 대한 회유와 정벌의 병행 여부를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신숙주-『해동제국기』(1471), 삼포-부산포·제포·염포, 북방 개척-세종, 여진 정책-회유와 정벌 병행이다.

NoteBase

문 10. 조선 지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군현 밑에는 면, 리, 통을 두고 다섯 집을 1통으로 편제하였다.
ㄴ. 수령은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며,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업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ㄷ. 향리는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였으며, 아전으로 신분이 격하되었다.
ㄹ. 각 군현에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 경재소를 설치하였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의 지방 제도에서 군현 하부 조직, 수령과 관찰사의 관계, 향리의 성격, 경재소와 유향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령은 군현의 행정을 맡은 지방관으로, 상피제에 따라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였고 관찰사의 감찰을 받았다.
향리는 군현에서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던 토착 실무층으로, 조선에서 아전층으로 격하되었다.
유향소는 각 군현에 설치된 향촌 자치 기구이고, 경재소는 서울에 설치되어 유향소를 뒷받침하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던 기구이다.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을 두었고 5가작통법에 따라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옳다고 본 조합이다. 그러나 ㄴ과 ㄷ도 옳으므로 조합이 부족하다. 틀린 표현은 'ㄱ만 해당한다'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옳다'이다.

② X
ㄴ, ㄷ만 옳다고 본 조합이다. 그러나 ㄱ도 옳으므로 조합이 부족하다. 틀린 표현은 'ㄱ을 제외한 조합'이며, 올바르게는 'ㄱ까지 포함한 ㄱ, ㄴ, ㄷ'이다.

③ O
ㄱ은 군현 아래에 면, 리, 통을 두고 다섯 집을 1통으로 편제한 사실을 말하므로 옳다. ㄴ은 수령이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고 관찰사가 수령을 감찰·평가한 사실을 말하므로 옳다. ㄷ은 향리가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였고 조선에서 아전으로 격하된 사실을 말하므로 옳다. 따라서 ㄱ, ㄴ, ㄷ을 고른 ③이 맞다.

④ X
ㄱ, ㄴ, ㄹ이 옳다고 본 조합이다. 틀린 부분은 '각 군현에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 경재소를 설치하였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각 군현의 향촌 자치 기구는 유향소이고, 경재소는 서울에 설치되어 유향소를 뒷받침하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였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뒤바꾸는 것이다. '각 군현에 설치'라는 표현이 보이면 유향소를 떠올려야 하고, '서울에 설치'라는 표현이 보이면 경재소를 떠올려야 한다. 또한 ㄱ의 5가작통법과 ㄴ의 상피제·관찰사 감찰을 따로 떼어 외우면 조합 선지에서 누락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지방 제도 문제는 기구의 위치와 기능으로 먼저 자른다. 군현 행정 책임자는 수령, 도 단위 감찰은 관찰사, 군현 실무 보좌는 향리, 군현 자치는 유향소, 서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경재소라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군현 밑 면·리·통, 수령 위 관찰사, 군현 자치는 유향소, 서울 지원은 경재소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기사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의 빈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노라.……나는 큰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였으니, 즉 자작자급(自作自給)치 아니함이라 하노라. 환언하면 조선 물산을 장려치 아니함이니 고로 오인(吾人)이 이에 대서특서(大書特書)하고 절규 고창하는 바는 자작자급 하자 함이니 즉 조선 물산을 장려함이 또 환언하면 보호무역을 의미함이니 이것이 조선인의 가장 큰 문제라 하노라.

① 500여 명의 인사가 민립대학설립기성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에 나섰다.
② "조선인이 만든 것을 입고, 먹고, 쓰자"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민족자본을 육성하려 하였다.
③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국민성금으로 국채를 갚자는 운동을 일으켰다.
④ 조선어학회가 참여하였으며,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온 자작자급, 조선 물산 장려, 보호무역의 논리를 근거로 물산 장려 운동의 성격과 구호를 다른 실력 양성 운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인이 만든 물건을 소비하여 민족 자본과 국내 산업을 키우려 한 경제적 민족운동이다. 키워드는 자작자급, 조선 물산 장려, 민족 자본 육성이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대학 설립을 통해 민족 교육을 확대하려 한 실력 양성 운동이다. 키워드는 민립대학설립기성회, 교육 진흥이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 진 국채를 국민 성금으로 갚아 경제적 예속을 벗어나려 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키워드는 서상돈, 대구, 국민성금이다.
문맹퇴치운동은 글을 가르쳐 민중을 계몽하려 한 사회 운동이다. 키워드는 조선어학회, 브나로드 운동, 문자 보급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500여 명의 인사가 민립대학설립기성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에 나선 것은 민립대학설립운동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민립대학설립기성회"와 "모금 운동"이며, 실제로는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이다.

② O
"조선인이 만든 것을 입고, 먹고, 쓰자"는 물산 장려 운동의 대표 구호이다. 국산품 소비를 늘려 조선인의 산업과 민족 자본을 육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제시문과 정확히 연결된다.

③ X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국민성금으로 국채를 갚자고 한 것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다. 틀린 표현은 "국민성금으로 국채를 갚자"이며, 실제로는 국채 상환 운동이지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 아니다.

④ X
조선어학회가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한 것은 브나로드 운동 계열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조선어학회가 참여"와 "문맹퇴치운동"이며, 실제로는 문자 보급 운동이지 물산 장려 운동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민족운동 또는 실력양성운동 계열이라서 시기와 성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제시문에는 자작자급, 조선 물산 장려, 보호무역처럼 경제 자립을 가리키는 표현이 반복되므로 교육, 국채 상환, 문자 보급과는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소비, 생산, 국산품, 민족 자본 같은 경제 키워드가 보이면 물산 장려 운동을 먼저 떠올린다. 대학 설립이면 민립대학설립운동, 국채 상환이면 국채보상운동, 문자 보급이면 문맹퇴치운동으로 가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 물산 애용, 민립대학설립운동은 교육, 국채보상운동은 빚, 문맹퇴치운동은 글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가),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 귀환(鬼幻)으로만 여겼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무엇을 볼 것인가.
(나)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① (가) -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② (가) -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③ (나) -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④ (나) -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 동명왕편과 (나) 발해고를 사료 문구로 식별하고 각 저술의 성격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가) 동명왕편: 이규보가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바탕으로 지은 서사시로, 고구려 계승 의식과 민족사의 자부심이 드러난다.
(나) 발해고: 유득공이 저술한 역사서로, 발해를 고구려 계승 국가이자 우리 역사로 보고 신라와 발해의 병존을 남북국으로 파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주몽의 건국 서사를 높이 평가하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이다. 동명왕편은 왕대별 연혁을 편년으로 적은 사서가 아니라 동명왕의 일대기를 노래한 서사시이다.
③ O: (나)는 유득공의 발해고이다. 발해 지배층인 대씨를 고구려인으로 보고 발해사를 우리 역사 체계 안에 넣어 이해하였다.
④ O: 발해고는 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시기를 남북국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오답 포인트

(가)의 사료에 "동명왕본기"가 보이므로 고구려 관련 저술이라는 점은 잡기 쉽지만, 형식을 편년체 사서로 착각하면 ②를 옳다고 보기 쉽다. 동명왕편은 사료를 바탕으로 했어도 결과물 자체는 문학적 서사시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형 역사서 문제는 먼저 글의 핵심 고유명사와 관점을 잡으면 판단할 수 있다. "동명왕본기"와 고구려 계승 의식이면 동명왕편, "남북국"과 발해의 고구려 계승 강조이면 발해고로 연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저술 형식까지 점검해야 오답을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동명왕편 = 이규보의 고구려 계승 서사시, 발해고 = 유득공의 남북국론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조치를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노산대군의 시호를 올리고 (중략) 묘호를 단종이라 하였다.
• 임금이 친히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하였다.
• 충무공 이순신의 사우(祠宇)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렸다.

① 왕권 강화를 위해 수시로 환국을 단행하였다.
② 수원에 새로운 성곽도시인 화성을 건설하였다.
③ 명의 요청을 수용하여 중국에 원병을 파견하였다.
④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 균역법을 시행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숙종의 대표 조치와 다른 왕들의 대표 업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숙종: 환국 정치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고, 단종을 복권하고 현충사에 사액하는 등 정치·예교 질서를 재정비하였다.
정조: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장용영을 설치하는 등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광해군: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이 이끄는 원군을 보내고, 뒤에는 후금과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전개하였다.
영조: 균역법을 시행하여 군역 부담을 줄이고 탕평 정치를 추진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O. 보기의 단종 복권, 명 신종 제사, 현충사 사액은 모두 숙종 때의 조치이다. 숙종은 붕당을 교체하는 환국을 수시로 단행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2번: X. 틀린 표현은 '수원에 새로운 성곽도시인 화성을 건설하였다'이다. 이는 정조의 업적이며, 숙종의 조치가 아니다.
3번: X. 틀린 표현은 '명의 요청을 수용하여 중국에 원병을 파견하였다'이다. 이는 광해군이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군대를 파병한 일을 가리킨다. 숙종과 연결되지 않는다.
4번: X. 틀린 표현은 '균역법을 시행했다'이다. 균역법은 영조가 백성의 군역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기의 '명나라 신종 황제 제사' 때문에 3번의 '명의 요청'과 연결하기 쉽지만, 두 내용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숙종은 대명의리를 내세운 왕이고, 명 원병 파견은 광해군 시기의 외교 사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왕을 묻는 문제는 대표 키워드로 먼저 정리하면 빠르다. 단종 복권·현충사 사액·환국은 숙종, 화성은 정조, 명 원병 파견은 광해군, 균역법은 영조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숙종 = 환국, 단종 복권, 현충사 사액이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백성들이 2필의 응역(應役)에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 그 폐단을 줄이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1필을 감하고 어(漁)·염(鹽)·선(船)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 아! 예부터 민역(民役)을 줄이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①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②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명과 후금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였다.
③ 호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창경궁 홍화문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④ 흉년을 당해 결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하여 『자휼전칙』을 반포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의 정책이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임을 파악하고, 영조 대의 다른 사실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영조: 균역법을 시행하여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분을 결작·선무군관포·어염선세 등으로 보충하였다.
현종: 자의대비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 논쟁이 벌어졌다.
광해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정조: 자휼전칙을 반포하여 유기아와 빈민 아동 구휼 제도를 정비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싼 예송 논쟁은 현종 때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예송 논쟁"이며, 영조 대의 대표 정책으로는 균역법 시행과 탕평 정치의 강화가 들어간다.
2번: X.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는 광해군 때의 대외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명과 후금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이며, 영조는 18세기 조선에서 탕평책과 균역법으로 왕권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3번: O. 영조는 양역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고, 창경궁 홍화문에서 백성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쳤다. 제시문의 군포 1필 감면 정책인 균역법이 바로 영조 때 시행되었으므로 이 선지가 맞다.
4번: X. 자휼전칙 반포는 정조 때의 구휼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자휼전칙"이며, 영조 대의 민생 정책으로는 균역법 시행이 대표적이다.

오답 포인트

왕별 대표 업적을 시대순으로 섞어 놓은 문항이다. 영조와 정조를 함께 떠올리거나, 조선 후기라는 공통점만 보고 4번을 고르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왕사 문항은 먼저 제시문 정책의 핵심어를 잡아 왕을 특정한 뒤, 각 선지가 그 왕의 대표 사건인지 하나씩 대조하면 정답이 정리된다. 이 문항에서는 "2필에서 1필로 감면"이 균역법의 결정 단서이다.

암기 포인트

영조=균역법, 현종=예송, 광해군=중립 외교, 정조=자휼전칙이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정강을 내세운 개혁 운동의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②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③ 이만손을 필두로 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④ 청·일 양국은 군대 파견시, 상호 통보키로 합의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된 정강이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임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 이어진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1884년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으킨 정변으로, 14개조 정강을 내세워 근대 국가 체제를 세우려 한 개혁 운동이다.
갑신정변의 결과는 정변 실패, 한성 조약 체결, 그리고 뒤이어 청·일이 톈진 조약을 맺어 조선 파병 시 서로 통보하기로 한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다. 틀린 표현은 갑신정변의 결과처럼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임오군란의 결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2번: X.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 파견은 갑신정변의 결과가 아니라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던 초기 개화기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일본 파견을 갑신정변 뒤의 성과처럼 잡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파견한 것은 갑신정변 이전의 개화 정책이다.
3번: X. 이만손 등이 올린 영남 만인소는 1880년대 초 개화 정책과 조선책략 유포에 반대하며 제기된 척사 운동이다. 틀린 표현은 영남 유생의 만인소를 갑신정변의 결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의 만인소는 개화 정책에 반대한 척사 운동이다.
4번: O. 갑신정변 뒤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의 군사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고, 1885년 톈진 조약에서 양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미리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시된 정강을 내세운 개혁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개화기 사건은 임오군란, 개화 정책 추진, 갑신정변, 척사 운동이 시기상 촘촘하게 이어져 결과를 서로 바꿔 붙이기 쉽다. 특히 갑신정변의 결과는 한성 조약과 톈진 조약인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나 수신사 파견처럼 정변 이전 사건을 결과로 착각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강 내용에서 문벌 폐지, 대원군 귀환, 재정의 호조 일원화가 보이면 갑신정변을 먼저 떠올린다. 그다음 결과는 정변 실패 이후의 한성 조약과 톈진 조약처럼 청·일 관계 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실패 뒤 한성 조약, 이어서 톈진 조약이다.

NoteBase

문 16. 1948년 남북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추진되었다.
ㄴ. 좌·우 정치세력의 합작을 위한 7원칙을 발표하였다.
ㄷ.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하였다.
ㄹ. 회의 결과,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1948년 남북 협상의 전개와 결과를 미소 공동위원회, 좌우 합작 운동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남북 협상은 1948년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에 가서 남북 연석회의에 참가한 사건이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한 회의이고, 좌우 합작 7원칙은 1946년 좌우 합작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이 틀리고 ㄴ도 틀리다. 남북 협상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뒤인 1948년에 추진되었으므로 '제1차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사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또한 7원칙은 남북 협상이 아니라 1946년 좌우 합작 위원회의 발표이다.

② X
ㄱ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ㄹ은 맞지만, 남북 협상을 '제1차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사이'의 일로 본 부분이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남북 협상이 추진되었다.

③ X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ㄷ은 맞지만, 7원칙을 남북 협상 내용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김구, 김규식 등의 평양 회의 참가가 남북 협상에 해당한다.

④ O
ㄷ과 ㄹ이 모두 맞다. 김구, 김규식 등은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하였고, 회의에서는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오답 포인트

1946년의 좌우 합작 7원칙과 1948년의 남북 협상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또 미소 공동위원회와 남북 협상의 선후 관계를 반대로 잡으면 ㄱ 같은 진술에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김구, 김규식, 평양, 남북 연석회의, 미소 양군 철수가 보이면 1948년 남북 협상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7원칙, 좌우 합작 위원회가 보이면 1946년 좌우 합작 운동으로 분리해서 본다.

암기 포인트

남북 협상은 김구·김규식의 평양 참여와 미소 양군 철수 결의이고, 7원칙은 좌우 합작이다.

NoteBase

문 17. 고려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왕실과 혼인을 통해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가문이 나타났다.

② 상층 향리인 호장층은 지방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③ 서민이 손쉽게 출세하는 벼슬은 궁궐의 잡무를 맡은 서리층으로 이를 산관이라 했다.

④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 굽는 염부를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뱃사공을 진척이라 불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신분 구조에서 문벌귀족, 향리, 중류층, 특수 직역민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문벌가문은 왕실과의 혼인과 음서, 공음전 등의 특권을 세습한 지배 가문이다.
호장층은 향리의 상층으로 지방 행정의 실무를 주도하며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남반은 궁중 실무를 맡은 중류층이고, 산관은 실직이 없는 관계나 허직 성격의 관직을 가리킨다.
철간·생선간·염간·목자간·진척은 힘든 특수 직역을 세습한 하층 양민 계층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고려 전기에는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외척이 된 문벌귀족 가문이 성장하였다. 문벌가문은 음서와 공음전 같은 특권을 세습하며 정치 사회의 상층을 이루었다.
2번: O. 향리 가운데서도 호장층은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이었고, 하위 향리보다 과거 응시와 관료 진출에 유리하였다. 그래서 지방 세력 가운데 과거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3번: X. 틀린 부분은 "이를 산관이라 했다"이다. 궁궐의 잡무나 궁중 실무를 맡은 중류층은 남반이라고 불렀다. 산관은 실직이 없는 관계나 허직 성격의 관직을 가리키므로, 서민이 비교적 진출하기 쉬운 궁중 실무 직역의 명칭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4번: O. 철간, 생선간, 염간, 목자간, 진척 등은 광업·어업·염업·목축·수운 같은 힘든 특수 직역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양인 신분이면서도 천역에 가까운 역을 부담한 계층으로 이해하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번은 궁중 실무를 맡는 남반과 실직이 없는 산관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신분 계층 명칭과 관직 명칭을 비슷하게 외우면 쉽게 걸리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신분 문제는 먼저 지배층, 중류층, 하층 양민을 나누고, 각 집단의 대표 직역과 명칭이 무엇인지를 대응시키면 빠르게 풀린다. 특히 남반, 향리, 산관, 칭간칭척자는 서로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부터 확인하면 판단이 선다.

암기 포인트

문벌은 왕실 혼인, 호장은 상층 향리, 남반은 궁중 실무, 산관은 실직 없음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결정을 내린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셋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

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②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다.
③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하였다.
④ 이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과, 한국 신탁통치가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된 얄타 회담을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1945년 12월 미국·영국·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열어 한국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 신탁통치를 결정한 회의이다.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 정상들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회담으로, 한국 신탁통치 구상이 먼저 국제적으로 거론된 자리이다.
카이로 회담은 1943년 미국·영국·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회담으로, 신탁통치를 결정한 회의는 아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가 맞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라는 명칭 자체가 시기와 장소를 함께 보여준다.

② O
참석자는 미국·영국·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다. 중국은 신탁통치 주체 4개국에는 들어가지만, 이 회의의 참석 외무장관 국가는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처음 국제적으로"이다. 한국 신탁통치 문제는 모스크바 회의보다 앞선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다. 올바르게는 "한국의 신탁통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회의였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④ O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반탁과 찬탁을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따라서 국내 분열을 일으켰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를 한 묶음으로 외우다가 "처음 논의"와 "구체적 결정"을 뒤섞기 쉽다. 특히 ③처럼 모스크바 회의를 신탁통치의 최초 논의 장소로 바꾸는 표현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방 직후 한국 문제를 다룬 국제 회의는 기능으로 구분하면 빠르다. 독립 약속은 카이로 회담, 신탁통치의 최초 국제 논의는 얄타 회담, 임시정부 수립안과 미·소 공동위원회 및 최장 5년 신탁통치의 결정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이다.

암기 포인트

카이로는 독립 약속, 얄타는 신탁통치 구상, 모스크바는 임시정부·미소공위·최장 5년 신탁통치로 연결해 기억한다.

NoteBase

문 19. <보기> 이야기의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오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 절의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습격하니 성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大聖)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울면서 세 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의 사자좌 아래에 감추어 두고 뒤돌아보며 돌아갔다.
— 『삼국유사』

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②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불교행사를 억제하고, 유교사상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정비하도록 건의하였다.

③ 동리산문의 승려이자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개성, 평양, 한양이 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여 고려왕들의 존숭을 받았다.

④ 신라 말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광친과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유사』의 일화로 인물을 파악한 뒤 그 인물의 대표 업적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최승로: 시무 28조 - 고려 성종에게 불교 폐단을 줄이고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할 것을 건의한 문신이다.
김대성: 불국사·석불사 -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창건한 인물이다.
도선: 풍수지리설 - 비보풍수설로 고려 왕실의 존중을 받은 승려이다.
최치원: 당 유학·빈공과 급제 - 신라 말 당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귀국 후 개혁안을 제시한 문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창건한 인물은 김대성이다. 선지의 설명 대상이 최승로가 아니라는 점이 틀린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김대성의 업적에 대한 설명이다.
2번: O. 제시문 속 아기는 최승로이다.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려 불교 행사로 인한 폐단을 비판하고 유교를 정치 운영의 중심 이념으로 삼아 국가 체제를 정비할 것을 건의하였다.
3번: X.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개성, 평양, 한양의 중요성을 말한 인물은 도선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최승로와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도선에 대한 설명이다.
4번: X. 신라 말 당에 유학하고 발해의 오광찬과 같은 해 급제한 인물은 최치원이다. 틀린 부분은 이 경력을 최승로의 것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마다 모두 유명 인물의 대표 업적을 제시해 두었기 때문에 인물 자체를 정확히 못 잡으면 그럴듯한 설명에 끌리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불교 설화가 나온다고 해서 김대성이나 도선으로 넘어가거나, 신라 말 개혁 인물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최치원과 섞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추론형 문제는 제시문에서 먼저 인물을 확정한 뒤, 각 선지를 대표 키워드와 바로 연결해 판단한다. 최승로가 확인되면 곧바로 시무 28조, 성종, 유교 정치 이념, 불교 폐단 시정으로 이어지면 된다.

암기 포인트

최승로 = 시무 28조 = 성종대 유교 정치 정비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정의 사대부들이 겉모양으로는 서로 사이가 좋으나, 마음속으로는 시기하여 심지어 은밀하게 중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전이 함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겸병이 더욱 심하여져서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은 주(州)를 타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과 내를 표지로 삼아 모두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리치며 서로 빼앗으니, 한 이랑의 주인이 5~6명을 넘고 1년에 조(租)를 거두는 것이 8~9차례에 이릅니다. - 『고려사』

①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 되었으며, 관료들은 경기도 땅에서 최고 150결,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지로 받았다.
② 관료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으며, 시지는 14등까지만 주었다.
③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었다.
④ 인품과 관품에 따라 최고 100결에서 최하 20결의 토지를 주었으며, 상층 향리에게도 주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말 사전의 겸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과전법과 고려의 전시과, 조선의 직전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과전법은 고려 말 사전 개혁을 바탕으로 국가가 수조권 질서를 다시 정비하고 경기 지역의 토지를 관료에게 지급한 제도이다.
전시과는 고려의 토지 제도로, 관품·관직 등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직전법은 과전법이 축소된 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제시문은 고려 말 권문세족의 사전 겸병과 조업전 문제를 비판한 내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가 과전법이다. 과전법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파악하여 수조권 질서를 재편하고, 경기 지역의 토지를 관료에게 18과로 나누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지급하였다. 선지의 '재분배'는 이러한 수조권 재편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하면 맞다.
2번: X. 틀린 표현은 '전지와 시지를 지급'과 '시지는 14등까지만 주었다'이다. 이는 고려의 전시과 계열 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과전법은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준 제도가 아니라 경기 지역의 과전을 관료에게 지급한 제도이다.
3번: X. 틀린 표현은 '현직 관리에게만'이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것은 세조 때의 직전법이다. 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4번: X. 틀린 표현은 '인품과 관품에 따라'와 '상층 향리에게도 주었다'이다. 이는 고려 전시과적 성격을 섞어 놓은 서술이다. 과전법은 조선 초 양반 관료에게 경기 지역의 수조지를 지급한 제도이지, 상층 향리까지 포함하여 그런 기준으로 분급한 제도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고려의 전시과, 조선의 과전법, 조선의 직전법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2번, 3번, 4번이 모두 그럴듯하게 보인다. 특히 '현직 관리에게만'은 직전법의 특징이고, '전지·시지'는 고려 전시과의 특징이라는 점을 분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사전 겸병, 조업전, 고려 말 토지 개혁 문제가 보이면 먼저 과전법을 떠올린다. 그다음 경기 지역 지급, 18과, 150결~10결이면 과전법이고, 전지·시지나 현직 관리만 지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각각 전시과와 직전법으로 갈라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전법은 고려 말 사전 개혁, 경기 지급, 18과 150결~10결이다. 현직만은 직전법, 전지·시지는 전시과이다.

NoteBase